

메이드 인 광주

musical



광주에서도 뮤지컬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포씨어터 단원들이 20일 호남대 강당에서 뮤지컬 '위대한 유산'의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위직라기자 jrwi@kwangju.co.kr

공연 마루, 매년 한편씩 제작... 이달 29일 '위대한 유산' 무대 올려

몇년 전부터 공연계의 대세는 '뮤지컬'이다. '캣츠' '맘미아' 등 대형뮤지컬은 물론이고, '싱글즈', '김종욱 찾기' 등 소규모 창작 뮤지컬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제작된 뮤지컬 '만화방 미술사'가 서울 대학로 무대에 입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광주산(産) 뮤지컬 제작품이 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각 극단들이 각종 기금을 활용, 정기 공연 작품으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던 데서 벗어나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작품을 제작, 눈길을 모은다.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기획사 공연 마루(대표 황인근)다. '캣츠',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대형 뮤지컬과 콘서트 등을 유치해온 마루가 작품을 들여오는 데서 벗어나, 직접 제작에 뛰어들었다. 마루는 현재 서울에서 공연중인 '라디오 스타'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등 뮤지컬 투자사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공연 마루는 극단 유포씨어터(대표 김군형 호남대 교수)와 손잡고 소규모 창작 뮤지컬 '위대한 유산'을 제작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될 '위대한 유산'은 김군형 호남대

교수가 대본과 가사를 쓰고, 현재 서울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찬스'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호남대 출신 이현삼씨가 24곡에 이르는 곡을 직접 만들었다. 각기 개성 있는 사남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유산'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작품으로 가족간의 정을 돌아볼 수 있는 뮤지컬이다. 이들의 공동 작업은 활동 무대가 없어 서울로 떠나는 지역 배우들에게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창작 뮤지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단 '위대한 유산'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레퍼토리화 시키고, 매년 한 작품씩 무대에 올린다는 복안. 황인근 대표는 "지역에서 뮤지컬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제작에 참여할 것"이라며 "일단 첫 공연을 끝낸 후 평가 과정 등을 통해 작품을 수정하고 보완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무대에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군형 대표는 "공동 작업은 서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는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공연 마루는 투자와 마케팅

등에서 특장을 발휘, 원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예술기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오는 5월 광주에서 댄스컬(댄스+뮤지컬) '잔향'을 무대에 올린다. '잔향'은 댄스와 춤으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댄스컬과 달리 연극을 바탕으로 무용과 영상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한세희씨가 총감독과 기획을 맡은 이번 작품에는 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유승진씨와 광주조이댄스아카데미 박정옥 원장, 스트리트 댄서팀인 '뉴런'의 멤버로 활약중인 이병은씨 등 3명이 안무감독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연극인과 무용인, 광주스트리트댄스연합회 소속 비보이 등 출연진이 출연한다. '잔향'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이 오랜 방황 끝에 '춤'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진은 서울 등 타지역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난해 대구뮤지컬 페스티벌에도 참여한 극단 백제와 연인의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와 극단 터의 '지하철 세상' 역시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개관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퇴근 후 미술관 들러 문화 향유

광주시립미술관 내달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전시

앞으로 야간에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오는 3월부터 직장인들의 퇴근 후 관람을 위해 밤 9시까지 미술관 문을 열기로 했다.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술관을 찾는 직장인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립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종전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밤 9

시까지 3시간 늘어나게 된다. 미술관의 야간개관은 문화예술계의 대세이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립미술관도 매주 금요일에는 밤 9시까지 연장개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립미술관은 작은 음악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특

히 미술관 학예사와 외부 강사를 활용해 전시회 작품을 설명하는 등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립미술관은 강사 초빙 예산 600여 만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예산을 늘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택 관장은 "이번 미술관의 관람시간 연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미술애호가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의 공공미술관에 비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아 삶의 여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순 대곡리 청동 유적지 완전 발굴

지난 1971년 청동칼, 거울 등 국보급 유물 11점(국보 143호)이 발굴된 화순군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가 완전 발굴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20일 대곡리 유적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유적지 내부에 있던 민가 주변은 발굴하지 못해 매장시설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근 실시한 추가조사를 통해 무덤구덩이(묘광·墓坑)를 찾아냈지만 추가 유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동유물 11점은 1971년에 출토지 주변에 있던 주택 주인 구모씨가 배수로 파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뒤 영장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영장수는 청동유물이 진귀한 것이라고 판단, 전남도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유적 일부가 민가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발굴을 하지 못하다 지난해 소유주와의 합의를 거쳐 추가 발굴하게 됐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발굴에서 드러난 매장시설은 풍화한 암반층을 파내고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



지난 1971년 화순군 대곡리 무덤 구덩이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 11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 무덤구덩이는 상하 2단으로 파내는 방식으로 조성됐고, 상층은 동~서 330cm, 남~북 280cm의 평면 방형에 가까웠다. 깊이는 동쪽 기준 85cm 가량이었다. 무덤구덩이 바닥에서는 길이 120cm, 너비 40cm 가량의 목관 일부가 발견됐다. 청동기의 대표적인 목관 양식인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쓰는 구형 목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곡리 고분이 축조된 시기는 기원전 4~3세기 무렵이며,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교계기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BPW 무등클럽 '춧불의식의 밤'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무등클럽(회장 송기희)은 21일 오후 6시30분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11층에서 전문직 여성의 발전과 사회봉사 다짐을 위한 'BPW 2008 춧불의식의 밤'을 개최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날 행사는 '삶이 된 전라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주제로 한 윤장현 광주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강연에 이어 해금중주단 '풍요' 및 뮤직&플루트 앙상블 공연으로 꾸며졌다. 한편 무등클럽은 오는 3월 대학 졸업예정자와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문화인력 CEO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section titled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uch as Megabox, Enter Cinema, Columbia, Sinner's, and Mudeung극장 with their respective showtimes and featured films.